

Series of Korean Language Articles Published on Korean American Institute's Political Almanac

https://news.koreadaily.com/2024/10/18/society/politics/20241018155331296.html https://news.koreadaily.com/2024/10/20/society/generalsociety/20241020183724109.html https://news.koreadaily.com/2024/10/21/society/politics/20241021204859496.html https://news.koreadaily.com/2024/10/22/society/generalsociety/20241022220242937.html

October 18, 2024

KAI, 한인 선출직 역사 담은 연감 공개···최초 당선은 1954년

70년간 선출적 231명 배출 연방상원의원 탄생합지 주목



교회인 아테리한 인소리큐드(MAIA가 되는 공세한 전인 선종적 인당에는 지역별로 및 등이 당선된는 지 등을 적인할 수 있는 지도 가능이 프림잭 되다. [현사이드(Hilps:())ka.imshute/koruanmshuta-mshuta-() 한 10.00

한인사회를 연구하는 미국 비영리단체가 한인 선출적의 기록을 정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코리안 이메리간 인스타듀트(KAI)'는 최근 미주한인성 지연길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마는 1954년 미국에서 한인 상치 인부터 현재까지 231명의 신출적 성치인들의 성보를 취합한 내용이다. 처음 신출된 합당 민부터 가상 최근인 텔리세미드피크 보호 의원 원용유봉까지가 총양리에 있다.

빨리 반은 1954년 회와이기 준주(基地)일 당시 주의회 의원으로 신출됐다. 최와이는 1959년 주로 승격됐다. 퀄링 빈은 1966 년에 시성했는데, 그해까지 주의원으로 활동했다.

1960년에는 알프레드 호면 송미 캠리포니아주 만나레이파크의 시회원으로 당신됐다. 그는 분보에서 신출된 첫 한인 정치인 이었다. 그는 이후 캠리포니아 주역의 하원의원 및 성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첫 연방하원의원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활동한 김창준 전 의원이었다.

KAI는 이후 225명 마상의 한인미 지방 정부부터 연방 정부까지의 다양한 신술적에 올랐고 당신된 주의 정치 정향도 다양했다고 본석했다.

연강에따르면 뉴욕 자격 한인 신출하이 110명으로 가장 않았다. 갤러포니어 지역이 5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복서부인 워싱 현과 오래선주에서도 20여명이 배출됐다.

현재 KM의 연강은 지역할 한인 선습적의 수를 보여주는 지도와 선습적들의 이름과 자석, 작책, 기간 등이 소개된 보로 구성돼 있다. KM 혹은 한인 선습적들의 악력과 활동 내용 등을 추기로 취향하고 있으며 관련된 영상 등도 추후 개제일 제외이라고 했다. 또한 임성된 한인 판사들 역사 따로 취항할 계획이라고 한다.

KAI의 회장을 않고 있는 비지니아 주의의 7신 하원의원 출신 마그 같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산술직들까라 서로 보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연결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이들은 한인회의 민주성등 등 모임에서 축사를 전하고 기관 성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이 대화하고 성적에 대해 마이기하길 비란다"고 말했다. KAI의 연결을 통해 선국의 한인 정치 인들이 함께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 상미다.

한편 KW는 2022년 위상턴 D.C.에서 술템한 비영리단체로 미직 정식 한국어 마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그 김 회장은 용해 초부터 회장직을 맡이 앞으로 마름 신크낸고 형식으로 키우고 한인들이 두루 공감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한민 단체의 합력일 계약미리고 전했다.

김영남 기지 [kim.youngnam@koreadaily.com]

October 20, 2024

한인 주류정치 진출 70년…231명 선출

KAI 미주한인정치연감① 1954년 하와이 밀립 인 최초 본도 첫당선은 알프레드 송 뉴욕 110명 하다 가주 50여명



원인 주류정치 인을 70년 그리면 선을

미주 한인사회를 연구하는 바엉리난해가 한인 산출적의 기록을 정리해 회례가 되고 있다.

'코리안 이에리칸 인스티듀트(KAI)'는 최근 미주한인정치연김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아는 1954년부터 현재까지 231 명의 산술직 정치인들의 정보를 취합한 내용이다. 처음 산술된 필립 만부터 가장 최근인 텔리페이드피크보로 의원 유병원 윤 째지 총생리대 있다.

필립 반은 1956년 회와이가 준집(集計)한 당시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화와이는 1958년 주로 승격됐다. 필립 반은 1966 년에 시회됐는데, 그해까지 주어와으로 활동했다.

1960년에는 양르레드 호현 송이 캠리포니아주 온더라이피그래 시작원으로 당신됐다. 그는 전보에서 신출된 첫 한인 정치인 이었다. 그는 이후 캠리포니어 주에의 하원에워 및 성원때원을 지내기도 했다.

첫 연방하원의원은 1933년부터 1935년까지 활동한 김왕준 전 파와이었다. KAI는 미후 Z25명 이상의 한인이 지당 정부부터 연광 정부까지의 대양한 선습지에 옮겼고 당신된 주와 상치 성양도 대양했다고 분석했다.

연강에따르면 뉴욕 지역 한인 신출적이 110명으로 가장 않았다. 갤리포니아 지역이 5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복서부인 워싱 현과 오리건주에서도 20여명이 배출됐다.

현대 KAI에 인경은 자격할 한간 신승자의 수를 보여주는 지도와 신승자들의 이름과 자리, 작편, 가간 등이 소개된 보로 구성되 있다. KA 혹은 안인 신승자들의 약약과 활동 내용 등을 추가로 취임하고 있으며 관련된 영상 등도 추후 개재일 계약이라고 했다. 다. 또한 인경된 한안 판사들 역사 따로 취합을 계약하라고 한다.

KAI에 화상을 받고 있는 비지나이 주의회 7선 회원에원 출신 미그 강은 최근 변지하여 인터뷰에서 "신송자들까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연감을 제작하게 된 게기를 밝혔다. 그는 "이들은 한민에의 민주광룡 등 모임에서 축사를 전하고 기본 상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이 대화하고 상혀에 대해 미마기하긴 바란다"고 말했다. KAI의 연감을 통해 한국의 한인 광지 인들이 함께 생산적인 일을 하는게기기 마련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한편 KW는 2022년 위상턴 D.C.에서 설명한 비영리단체로 마침 성식 한국이 이름이 상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그 김 회상은 올해 초부터 회상적을 말마 앞으로 마름 성그년고 형식으로 키우고 한언들이 두루 공감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한민 단체와 합력할 계약미리고 산했다.

김영남기치

October 21,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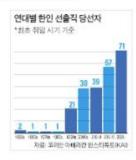
'한인 당선인' 10년<2014~2024> 새 80% 급증

KAI미주한인정치연감고

10년전 첫 4년간 39명→71명 10명 중 7명은 뉴저지 - 가주 남 55%~~성별 분포 콘차 없어



바용리재단인 코리안 아메리안 인스티듀트(KA+회상 마크 김)가 최근 발표한 미주한인성치인임 《본치 10월 21일치 A 1 면) 을 분석한 결과, 한인 신출적 정치인의 수는 2000년대 미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대 초와 2020년대 초를 비교하면, 약 10년 세 한인 신출적 청자인은 30% 기까이 늘어났다.



먼저, 한인 신출적 정치인의 역사는 필급 만해외이주 확원의원), 보비트 원배 상(회의이주 회원의원) 등이 배출되었던 1950년 대부터 시작됐다. 이어 1960년대의 70년대, 80년대에 각 한 영역 당신됐다.

한인 신출적 정치인은 1990년대 21명, 2000년대에는 38명으로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때 한인 정치력의 비약이 상 당부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대에는 96명이 산술됐다. 이를 5년 주기로 나눠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9명,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7명이 당신되면서 본격적으로 한인 사회의 정치력이 신청된 지기로 평가된다.

가장 하근 통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 71명이 신출됐다. 본째 한인 1.5세, 2세들의 성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을 강안하면, 2010년대의 수를 쉽게 뛰어넘을 젖으로 예상된다.

자약별로 보면, 한인동이 많이 기존하는 등육· 등저지 지역(110년)에서 기상 많은 한인 첫치인이 배출됐고 챙리포니아(54년) 가 뒤를 마았다. 뭐상편- 오리건(21명) 등에서도 많은 한인 신출적 정치인이 배출됐다.지난 70년만 신출된 한인 정치인(총 231 명) 중 약 70%가 한인 다수 가족 지역인 등처지와 캠리포니아 등에서 나온 셈이다.

호마님은 많은 바그전 하이 이구가 많은 역스고시(#관래스) 호· 조 하위성위(미치/개호연 ㅎ#구· 조 성위성위) 노스커를 라이나(아리오베너센트-시의원), 코네티켓김벨리피오레요·주하원의원), 본테나(이호포메로미·키미샤네), 네비디(프란 시스 엔런 플랜스키- 시의원), 오줌리호마(대니얼 배· 주하원의원) 등에서도 한언 정치인이 한 명력 선출됐다는 점이다. 미주 리주(존 패터슨 - 메일리 수위비 - 주 하원의원)에서도 두 명의 한인이 신출된 바였다.

당성과 여성씩 비율은 당성 128명, 여성 10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LA시 공공시입위원회 카미셔너로 내정된스티브링은 "한인 이번 역사가 늘어가며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이 어쩌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며 "1.5세와 2세가 정치에 참여하는 나이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당신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콜리호마를 비롯한 비교적 시골인 지역에서도 한민들이 당신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인의 수는 작어도 핵 인이 많은 지역에서 한민들이 당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mark>. 이</mark>어"로갈 정부뿐만 아니라 사정부, 주정부, 연방의회 등 다 양한 위치에 한인들이 신출되고 있고,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었다.

KAI 자료에 따르면, 첫 한인 인명 화원의원은 검장준 의원(1993-1999)이다. 약 20년 후인 2019년에는 앤디 김 하원의원이 의 성활동을 시작했다. 여성인 미셸 스틸, 영 감, 메릴린 스트라랜드 하원의원 역시 2021년부터 의원칙을 수행하고 있다. 앤디 감 의원은 올해 11월 신기에서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선하고 입다.

이성으로 처음 신출된 한인 성치인은 엘래노어 김 치우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문대벨로 교육위원하에서 1970년부터 1993년 까지 위원으로 활동했다. 하와미의 도나 메르키도 같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주 하원의원, 1986년부터 2000년까지 호놀 를루 시의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 상원의원을 지냈다.

한인 취초로 주정부 고위적에 오른 인물은 2022년 하와이 부지시작을 시작한 살비미 정 루크다, 가장 처음 시장작에 오른 사람 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등욕주 사리토가 스프랑스 시상을 지낸 로널드 감이다.

PHOTOLUS.

한인 주류장치 진출 70년---231명 선출

October 22, 2024

한인 여성 선출직 54년간 103명 배출

[KAI 미주한인정치연감 3 · 끝] 1970년 엘러노어김 첫당선 주의회 최초 엄성은 도나김 90년대부터 동부서 속속 당신 반세기만에 연방의하도 입성











엑전노이 간

도나 에르카도 간

18219

1950년대부터 한인 선출적이 미국에서 탄생한 가운데 여성 선출적 역시 1970년 엘리노어 김 치우 문대행보통합교육구 위원 을 시작으로 꾸준히 배출됐다. 치우 위원은 1970년부터 1993년까지 해당 교육구 위원을 지냈다.

변지가 바였다.제나인 플라인 이메라란 인스티투트 KRF 회장 대표 같다가 최근 발표한 미주한인정치연감을 분석한 결과 1950 년대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231명의 한인이 신출적으로 활동했다. 당성과 마성의 비율은 남성 128명, 마성 103명으로 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2년 휘나이 대일리 뉴스에 실린 치우의 부고 기사에 미르면 그는 매질환을 앓다 그해 7월 101세를 일기로 열세했다. 치우 는 대학 자학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방법적 학교를 그만두고 한 은행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후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고육구 위 원에 당신됐다. 부고 기지에 따르면 그의 한 동료는 치우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미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나 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평생을 현진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다음으로 선충된 한인 마성은 도니 메르카도 감이다. 그는 하와이주 하완의원(1922-1984) 호낭물로 시의원(1995-2000), 하 와이주 상원의원(2016-2020)을 자냈다. 이상으로는 최초로 주의하여 임상한 인물이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재키영이라는 이상이하와 이주 하완의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2월 스타이트바다이저에 살린 부고 기사에 따르면 그는 뇌졸중으로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동료들은 "제키는 초창기 페미니스트 운동에 나신 핵심 인물이었다"며 "여성의 권익을 위해 임상셨던 인물이었다"고 선했다.

마시 최리는 인물의 경력도 눈에 반다. 그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사마를 사의원을 지냈다. 이후 위상반주 상무부에서 국 상을 자료고 2004년부터는 방로얼린다 케이츠 지난에서 활동했고 최고관리책임자(CAO) 자리까지 올랐다.

1930년대에 들어 한인 여성 신출적의 수가 점치 늘머니며 가존 서부의 하와야 지역에 국한됐던 정치인들이 동부에서도 나오 기 시작했다. 미미 김 백만노류스/플로리다주 하원의원 · 1992-1994), 패티 강(현상베이니아주 하원의원 · 2013-2024) 등음 동부 자역 주의회에 당신된 초창기 한인 여성 신출적으로 꼽을 수 있다.

2020년 신기에서는 한인 이상인 캠리보니아 공화당 소속 미셸 스팅과 영 집, 메일된 스트라센트(워싱턴- 반죽)가 연방하원에 임상했고 연임에 성공, 모두 윤 11월에 3선에 도전한다.

한역 연방 한인 정치인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팬디 김 하원의원(뉴저지-빈주)까지 총 네 영어다. 이름의 장치성향은 공항당 두 명과 민준당 두 명으로 근통하게 나뉘어 있다.

원형님기지 [kim.youngnam@koreadaily.com]